



변동준 / 본회 이사
삼영전자공업(주) 사장

외형성장보다 내실 우선을

1990년 올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금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 나라밖으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페르시아만 사태와 그 뜨거웠던 동구의 민주화 열기는 마침내 독일의 통일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에 이르렀고, 나라안으로는 한·소 수교와 UR협상압력, 유가인상 움직임 및 각종 사회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급기야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선포라는 미중유의 조치를 내리게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국내경제상황 역시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니 우리경제를 좌우하는 수출경기 또한 이렇다할 실적없이 거의 작년 수준을 맴도는데 그쳤으며 이에 설상가상으로 성장률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른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인 전자산업부분 까지도 담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연초에 예상됐던 고경쟁·고비용·고변화 이른바 新3高의 여파가 전자산업을 위시한 국내 전체산업을 강타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

하면 전자산업은 앞으로 10년간 연10% 이상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자산업이 걸어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정부는 주44시간제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동향은 점차 제조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에 치중하게 되어 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할때 선진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전자산업의 선두주자들은 HDTV 등 다기능첨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신제품은 가히 눈이 부실 지경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력하고 노력을 경주해야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과거처럼 만들면 팔린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생산했던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이른바 새로운 신흥공업국 예컨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맹렬한 추격을 결코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전자업체가 나아가

야할 방향은 보다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전자산업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전제품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컴퓨터 등과 같은 산업용 전자부문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가일층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소간의 수교는 물론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은 우리 전자산업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농칠세라 국내 전자업체는 이러한 북방연기를 새시장개척이라는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국내기업간 출혈경쟁을 벌일 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 모처럼만의 활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깊이 새겨들만 하다.

모든것을 차지하고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형성장보다는 내실을 착실히 다져간다는 자기 성숙의 자세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와 같은 부품 메이커들이 겪는 고충으로(우리 삼영 전자만이 겪는 고충인지도 모르지만) 전자제품의 경박단소(輕薄短小)에서 오는 기술적 변화대응과 세트메이커에서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JIT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며 이에 따른 다품종소량(多品種小量) 생산에 수반하는 애로가 있음을 첨언하고 싶다.